



# 난항 제주 크루즈산업... 내년엔 달라지나

### 2016년 120만명에서 지난해엔 2만명으로 '뚝' 사드 영향... 대만·일본을 대체시장으로 설정 내년 140만명 목표로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

2017년 사드사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주 크루즈 산업이 내년 목표를 대폭 상향 설정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국제 크루즈선 입항 현황은 2014년 242회·59만400명, 2015년 285회·62만2068명, 2016년 507회·120만9160명으로 절정을 찍었다. 하지만 사드 사

태로 중국발(發) 크루즈선의 제주 입항이 중단된 2017년부터는 98회·18만9732명, 2018년 20회·2만1703명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올해도 13일 현재까지 28회·4만3078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국의 빈자리를 일본과 대만으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예산 12억원

을 투입해 크루즈포럼 개최, 해당 국가에서의 유치 마케팅을 강화해 내년 국제 크루즈선 입항을 516회(제주시 296회, 서귀포시 220회)·140만명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제8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5억원) ▷아시아 크루즈리더네트워크 운영(3억원) ▷크루즈 유치 마케팅(5000만원) ▷크루즈시장 다변화(2억원)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1억원) ▷크루즈 관광안내서 운영(5000만원)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제주가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도시

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목표로 잡은 크루즈 관광객 140만명이 방문한다면 750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크루즈시장은 2008년~2017년까지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27년까지도 연평균 약 4%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경우에는 2008년~2017년까지 연평균 19.8%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2027년까지는 연평균 3.7%의 성장이 전망됐다.

송은범기자



브로콜리 심는 농민들 14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 파종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정기국회 '끝'... 제주 국회의원 행보 관심

### 강 의원, 금주 입장 표명 가능성 오·위 의원, 지역·국회활동 중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 한 제주 국회의원 3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 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만큼 이들의 행보는 총선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그 행보가 가장 주목 받는 이는 4선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다.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 의원은 최근 정기국회 의정활동에 집중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선을 노리는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과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도 앞으로의 시간표를는 내년 총선에 맞춰져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과제를 풀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에서 갈등 해결의 해법을 찾고, 총선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제2공항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돼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현장을 찾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의 활동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며 20대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원 설득 작업에도 공을 들인다는 목표다.

국회=부미현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전략 부재"

### 13일 오영훈 의원,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토론회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유산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등재해 놓고도, 활용 전략과 방안이 없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계 유산,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전략과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 부문의 참여 부재와 지자체·정부의 인식과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글로벌 시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의미와 보존·활용 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한남대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는 "1년 혹은 2년에 하나가 선정되는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국내에서의 경쟁은 치열하다"면서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 이도2동장 추천위원 모집

제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실시 지역인 이도2동장 추천을 위한 주민추천위원을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추천위원은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이도2동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추천위원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이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주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대로그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가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개헌통해 자치분권 헌법적 원칙을" 대신협-행정안전부 12일 '자치분권 토론회'

새로운 시대의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언론이 뭉쳤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가 주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가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김중석 회장을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 등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 지역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정화 한 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의의와 실태,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과제를 설명하는 등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방분권이 미약한 현상의 원인은 헌법에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보장조항 자체가 빈약하고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주요 내용의 대부분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국회와 자치위원회의 입법권 배분에 관한 헌법적 원칙 확립이 필요하고 자치법을 제정권과 개헌을 통한 과제자주권 보장,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성

제도적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인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행안부 선거회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중석 회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과 지역 전문가로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참여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중석 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 지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인 차관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지자체와 지역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방자치가 잘 자라려면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2019 JDC 초등학생 영어캠프

지역상생,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인 "JDC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영어캠프는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영어로 진행되며,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키워 영어실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주 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대학교
- 장 소: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 기 간: [1차] 2019. 1. 6.(월) ~ 1. 10.(금) (4박5일)  
[2차] 2019. 1. 13.(월) ~ 1. 17.(금) (4박5일)

- 신청자격: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기존 참가자 제외)
- 선발인원: 1차 - 60명, 2차 - 30명
- 신청기간: 2019. 12. 16.(월) 09:00~12. 24.(화) 12:00
- 신청방법: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1차 중복 신청 불가)
- 선발발표: 2019. 12. 27.(금) 17:00 예정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ll.jejunu.ac.kr)
- 선발방법: 전자추첨
- 참가비: 전액 무료
- 숙박시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이용(2인1실)

문의: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 064-754-2291~2



## 2019년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초대합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13개 단체의 여성 지도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2019년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귀하를 모시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본 행사에 더욱 빛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생 올림

행사명 2019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11:00~15:00  
| 장소 | 제주칼호텔 대연회장 2층

· 주최: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 문의: 010-3693-7833

2019. 12



## 우리가 만들어 낸 감귤 신제품 설명회 및 작고 맛있는 '미니향' 평가회 개최

일시 2019. 12. 23(월) 11:00~13:00

장소 서귀포시 신농양동순로 102-24(남원읍 신동리)

공동개최 한농바이오산업(주), (주)제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참석대상 감귤 재배농업인 및 연구원 등

### 주요 내용

- 우리가 만들어 낸 감귤 신제품 소개
  -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육종한 신제품 감귤 전시 및 소개
  - 한농바이오산업(주), (주)제농, 감귤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호추에 수출한 국내 육종 품종 식물검역 추진상황
- 작고 맛있는 '미니향' 현장 평가
  - '미니향'의 재배 특성 및 과실 품질 우수성 평가
- 보급확대 방안 토론

문의: 한농바이오산업(주) ☎ 064-727-3307